



이탈리아 은행의 금융 불안 원인과 전망

이아름 연구원

요약

■ 최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역내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 이탈리아 은행인 BMPS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한편,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대출 건전성 악화로 상승함.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은행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하여 유럽중앙은행(ECB)과 이탈리아 간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금융 불안이 NPL 비율이 높은 국가로 전이되어 결국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실시된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유로존 내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 이탈리아 3위 은행인 BMPS¹⁾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2016년 7월 29일 EBA는 역내 51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향후 3년간 위기 시나리오상에서 핵심자기자본비율(CET1)²⁾은 12.6%에서 9.2%로 하락할 것으로 집계됨.³⁾
- 이탈리아 은행인 BMPS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은 -2.24%로 2018년 사실상 파산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5년 말 기준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NPL)⁴⁾ 비율은 16.8%(3,600억 유로)로, 이탈리아 GDP의 2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그림 1)과 (그림2) 참조.

- 이에 반해 2015년 말 프랑스, 독일, 영국 은행의 NPL은 각각 4.0%, 3.0%, 2.5%를 차지함.
-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은행의 NPL 비중은 5% 수준에 그친 것에 비교하면 약 17%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은행의 NPL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임.

1) 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 S.p.A.

2) 총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비율로, 중요 은행은 7.5%를 넘어야 함.

3) 8개 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인 7.5%를 넘지 못함. 이는 이탈리아 2개, 아일랜드 2개, 오스트리아·영국·독일·스페인 등이 각 1개로, 대형은행인 UniCredit(이탈리아), BMPS(이탈리아), Barclays(영국), Commerzbank(독일) 등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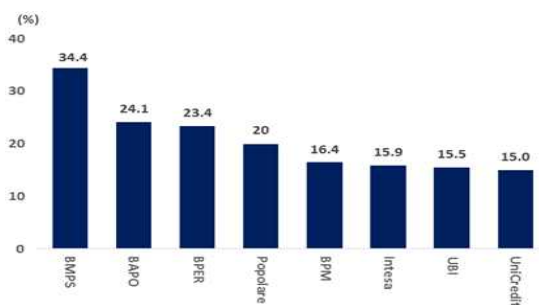
4) NPL은 Non-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무수익대출의 규모를 말함. NPL은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경우를 뜻함.

〈그림 1〉 국가별 NPL 비율(2015년 말 기준)



자료: 유럽은행감독청(EBA).

〈그림 2〉 이탈리아 주요은행 NPL 비율(2016년 1/4분기 기준)



자료: Goldman Sachs; 국제금융센터.

■ 이탈리아 은행들의 높은 NPL 규모는 경기 둔화 지속,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률 하락, 가계 및 기업 대출 건전성 악화 등에 기인함.

- 2008년부터 2015년 중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해는 2010년, 2011년, 2015년 등 3개년에 불과하였고, 2011년과 2015년은 1%에도 미치지 못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률 하락 등으로 가계 대출과 기업 부실채권이 증가하였으나 대출을 쉽게 연장해 주면서 부실이 확대되었음.

■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있어 유럽중앙은행과 이탈리아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NPL 비율이 높은 국가로 금융 불안이 전이되어 결국 유로존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부실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제금융 이전에 채권자 손실부담⁵⁾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구제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은행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금융자금 투입안 승인을 요구⁶⁾하고 있음.
 - 반면, EU는 해당 규정⁷⁾에 따라 이탈리아 은행에 부실채권 비중 축소를 강하게 요구함.
 -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자금 투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ECB와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 유로존 내 불확실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대출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가 유로존 붕괴(Eurozone meltdown)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kiri](#)

5)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를 상각하는 것임.

6) 2016년 10월에 실시될 정치개혁안 도입 관련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현재 이탈리아 Renzi 총리가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이번 국민투표는 정치인들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것임.

7) EU는 2014년 구제금융 반대 규정을 도입하면서 기업 부실에 따른 비용은 우선적으로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